

아시아계 미국인 가족의 의사소통 패턴에 미치는 영향분석

장안리*

< 국문 요약 >

본 연구에서는 가족 의사소통 패턴 체계에 따른 아시아계 미국인 가족의 의사소통 패턴이 자녀의 의사소통 행동 및 심리사회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1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개인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아시아계 미국인 자녀와 이민 1세대 부모로 구성된 가정의 의사소통 패턴은 1)자녀의 내적 정체성 갈등 2) 자녀들에 의해서 제한된 부모의 역할, 3) 조원을 원치 않는 자녀들, 4) 조언을 해주고 싶은 부모들, 5) 부모의 일방적인 아시아적 의사소통 유형 및 6) 자녀들의 소극적이고 회피형의 의사소통 방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조지형적 가족 의사소통 패턴이 자녀의 정체성 및 의지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발견하였으며 아시아계 미국인 자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방안 및 후속연구를 제시한다.

[주제어] 다문화, 아시아계 미국인, 아시아계 미국인 가족 의사소통 패턴, 아시아계 이주민, 동조지향적, 대화지향적, 정체성

*장안리(E-mail: anli37@gmail.com)

학위취득대학: Univ. of Maryland at College Park

현직: 홍익대학교 광고홍보학부 조교수

논문접수일 : 2015년 10월 15일, 논문수정일 : 2016년 4월 30일, 게재확정일 : 2016년 5월 6일

Asian-American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from the Perspective of Young Adult Children

Jang, Ahn-lee

<Abstract>

The current study examines ways in which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of Asian-American families influence communication and psychosocial behaviors of the children. In-depth interviews and focus groups with 17 Asian-American young adults reveal various communication issues between them and the first generation parents. First, the study found that communication patterns of Asian-American families are influenced by 1) the children's internal identity struggle; 2) parents' limited roles in the family; 3) children's unwillingness to seek advice from their parents; 4) parents' willingness to give advice; 5) parents' information-oriented and "Asian communication style; and 6) children's avoidance and passive communication style. Findings revealed that children's identity issues and their willingness to maintain a conformity-oriented communication style play a role in shaping Asian-American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The study provides suggestions for strengthening mental health of young adult Asian Americans who have family communication problems, and offers suggestion for subsequent research.

[Key words] *Asian American children, Asian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Asian immigrant, multiculturalism, conversational and conformity communication, identity*

I. 서론

2016년 현재 미국 내의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인구수는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 인구조사국은 2030년까지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수가 약 2000만을 넘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US Census Bureau). 그러나 아직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가족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현재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아시아계 가족의 문제는 유럽 이민자들에 비해 더 많으며 (Greenberger and Chen 1996) 아시아계 미국인 가족 내 세대 간의 갈등은 자녀들의 사회심리적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Lee and Choe et. al. 2000). 부모세대와의 갈등에서 벗어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자녀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바 있다 (Lee 1997; Uba 1994). 이러한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은 이주민인 부모와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 사이의 문화 적응 정도의 차이에 기인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Costigan and Dokis 2006).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미국 문화에 더 빨리 적응하는 이유로 가정안에 문화차이와 가치관 등의 차이는 갈등으로 이어지며 이러한 경우 종종 문화적 차이를 좁히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는 한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세대차이 또는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은 아시아계 미국인 자녀들이 겪는 문제나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지만 코너와 피츠패트릭(Koerner and Fitzpatrick 2002b)은 가족 구성원간의 의사소통, 즉 가족 의사소통 패턴을 통해 자녀의 사회심리 및 행동 결과를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가족 의사소통 패턴 체계는 가족의 구성 체계와 자녀의 사회적 현실에 대한 인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가족의 의사소통 행위가 자

녀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가족 의사소통 패턴 체계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자녀의 자아개념, 정신적 건강, 관계 만족도 그리고 스트레스 지각과 같은 사회 심리적 특성들과(Kelly and Keaten et. al. 2002; Schrodt 2005; Schrodt and Ledbetter 2007; Sillars and Koerner et. al. 2005) 공격성, 요구/위축 패턴과 같은 행동적 특성들이 가족 의사소통 환경의 결과물이라고 제시하고 있다(Schrodt and Ledbetter 2007; Schrodt and Ledbetter et. al. 2007).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아시아계 자녀들이 가족 내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부모와 자녀 간의 문화적응 정도의 차이보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의사소통 패턴이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코너와 피츠패트릭의 가족 의사소통 패턴 체계에 의거한 (Koerner and Fitzpatrick 2002) 아시아계 미국인 가족의 의사소통 패턴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어떠한 요소가 이들의 가족 의사소통 패턴에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는 데 있다. 또한 아시아계 미국인 가정의 의사소통 패턴이 자녀들의 행동 및 사회심리적 영역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이해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는 주로 가족 의사소통 패턴에 대해 정량적 연구들이었으며 (Schrodt and Witt et. al. 2008) 가족 의사소통 패턴이 아시아계 미국인 가족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에 기여를 한다고 할 수 있다. 첫 째, 아시아계 미국인 가족의 의사소통 패턴을 정성적으로 살펴봄으로서 아시아계 미국인 자녀들이 자신들의 가족 의사소통 패턴에 대하여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이해할 수 있으며 둘 째, 가족의 의사소통 패턴이 자신들의 사회심리적 영역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

는지 살펴봄으로서 기존의 정량적인 연구에서 드러나지 않은 부분을 좀 더 주도면밀하게 이해할 수 있다. 다소 민감할 수 있는 가족사 및 부모님과과의 관계에 대하여 이해함으로써 기존에 연구의 한계로 인식되었던 부분을 포착하였다는 점에서 시사 하는 바가 있다고 사료된다.

II. 선행연구

1. 가족 의사소통 패턴

가족 의사소통 패턴에 관한 연구의 시초는 맥레오드와 셰피(McLeod and Chaffee 1972)의 부모 및 가족 의사소통이 자녀의 정보처리 능력에 (예: 대중매체 정보의 이용능력)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맥레오드와 연구자들은 (McLeod and Atkin et. al. 1972) 개념 지향과 사회 지향이라는 가족 의사소통환경의 두 가지 측면에 집중했다. 개념 지향은 부모가 생각과 개념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이 자녀의 정보 탐색능력과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개념지향성이 높은 가족의 경우 관계보다 생각을 더 중시하며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열린 토론을 하고자한다 (Baxter and Bylund et. al. 2005). 반면에 사회지향성은 사회적 역할과 관계가 자녀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다룬다. 사회지향성이 높은 가족의 경우 생각보다 부모-자녀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중시하며 가정의 평화를 위해 갈등을 피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Baxter and Bylund et. al. 2005). 사회지향성은 부모의 권위에 복종할 것을 강조한다.

리치는(Ritchie 1991; Ritchie and Fitzpatrick 1990)은 이후 맥레오드와 셰피의(McLeod and Chaffee 1972)의 체계를 재구성하여 개념지향

대신 대화지향, 사회지향 대신 동조지향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동조지향성이 높은 가족의 경우 가족 구성원 간의 조화와 생각의 일치를 중시하며 이들은 가족 구성원 개인보다 가족 전체의 이해관계를 더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다(Koerner and Fitzpatrick 2002a). 또한 동조지향성이 높은 가족의 구성원들은 갈등과 대립의 상황을 기피하는데 이는 갈등과 대립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동조지향성이 낮은 가족의 경우 개인의 신념, 모든 구성원간의 평등 그리고 개인의 성장을 중시 한다 (Schrodt and Ledbetter et. al. 2007). 그 대신 대화지향성이 높은 가족은 생각과 의견의 열린 토론을 중요시하며 가족 구성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한다 (Ritchie 1991). 즉, 대화지향성이 높은 가족은 가족 구성원들의 독립성뿐만 아니라 가정 내의 자유로운 상호작용을 강조 한다 (Koerner and Fitzpatrick 1997; Ritchie and Fitzpatrick 1990). 이러한 경향성이 낮은 가족은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 그리고 사적인 활동을 서로 공유하는 상호작용이 활발하지 않고 (Schrodt and Ledbetter et. al. 2007) 의견 표출에 제약이 되며 종종 갈등 상황 자체를 회피하게 된다 (Koerner and Fitzpatrick 1997).

가족 의사소통 패턴에 관한 연구들은 이 두 가지 가족 지향성(동조지향성과 대화지향성)과 관련된 자녀의 정보처리능력 (Chaffee and McLeod 1973; McLeod and Rush 1968), 의사소통 행위 (Koerner and Fitzpatrick 1997; Schrodt 2005; Schrodt and Ledbetter 2007), 그리고 사회심리학적 특성 (Afifi and Olson 2005; Schrodt and Ledbetter, 2007; Sillars and Koerner et. al. 2005)에 대한 다양한 결과들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자녀들의 행동 및 사회심리

학적 특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예를 들어 샤롯(Schrodt)과 그의 동료들은 (Schrodt and Ledbetter 2007; Schrodt Ledbetter et. al. 2007) 가족 의사소통 패턴이 자녀의 자아 존중감, 정신적 건강 그리고 스트레스 지각을 설명할 수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가정 내에서 의사소통 환경이 조성되면 열린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고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통해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며 스트레스는 저하되어 정신적으로 건강해진다는 것이다. 즉, 대화지향성 경향이 높은 가족의 자녀들은 일반적으로 동조지향성이 높은 가족의 자녀에 비해 정신적 행복감이 높다는 것이다.

아피피와 올슨(Affifi and Olson 2005)은 가족 의사소통 패턴이 가정 내 정보의 이용 (예: 비밀의 공유/은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동조지향성이 높은 가족의 구성원은 민감한 정보를 공개했을 때 뒤따를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질책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를 공개하는 것을 꺼려했다. 반면 대화지향성이 높은 가족의 경우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므로 의견이 대립되는 것도 자연스럽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Barber 1994). 텅투미(Ting-Toomey 1985; Ting-Toomey and Oetzel 2001)에 따르면 균형 잡힌 가치를 가지고 있고 동조지향성이 높은 가족일수록 대립상황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므로 특정 정보에 대한 직접적인 대면을 피하며 상대의 의견과 다른 생각을 입 밖으로 내는 것 자체가 예의 없는 행동으로 여긴다고 한다. 이는 대체로 가족 내에서 사회화 되어 부모의 권위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기인한 것이다 (Barber 1994). 특정 정보를 회피한 결과, 동조지향적 가정 내의 자녀들은 종종 우울감 (Koerner and Fitzpatrick 1997), 스트레스 (Pennebaker 1997) 그리고

관계에 대한 불만족 (Vangelisti and Caughlin 1997)을 경험하게 된다.

갈등 특성과 해결방법에 대하여 코너와 피츠패트릭 (Koerner and Fitzpatrick 2002b)은 동조지향성이 높은 가족의 경우 “갈등이 발생하면 구성원간의 질서를 재정립하기 위해 매우 강력하면서도 강압적인 방법이 유발된다”고 주장하였다 (247). 동조지향성이 높은 가족의 경우 구성원들은 갈등을 가족 규범(norm)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여기며 이를 부정적인 현상으로 간주한다. 그 결과 그들은 갈등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하며 공격적인 언행을 구현하게 된다. 또한 동조지향성이 높은 가족의 구성원은 동조지향성이 낮은 가족 구성원에 비해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 공감능력이 떨어지고 상대방의 입장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Koerner and Fitzpatrick 2002b). 반면 대화지향성이 높은 가족 구성원의 경우 갈등이 발생하면 서로 지지해주는 행동을 보여주고 갈등이 구성원간의 관계에 해를 끼치는 경우는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대화지향적인 가족의 구성원은 갈등을 가족관계 개선의 기회로 바라보며 동조지향적인 가족에 비해 갈등을 더 효과적으로 다룬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동조지향성이 높은 가족과 낮은 가족이 말하는 행동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일상의 대화가 확연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Koerner and Cavanaugh 2002). 동조지향성이 높은 가족의 경우 본인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높으며 주로 대화에 상세한 설명, 조언 그리고 질문 등을 포함시킨다. 반면 동조지향성이 낮은 가족의 경우(예를 들어 대화지향적 가족) 확인, 시인, 반영 그리고 타인을 기준으로 하는 의사소통의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의사소통을 보다 유의미하게 수행하는 쪽은 확실히 대화지향적인 가족의

구성원들이었으며 회피적인 입장을 보이는 참여자들은 동조지향적인 가족의 구성원인 것으로 나타났다(Avtgis 1999). 근래에 와서는 이러한 대화지향적 소통 패턴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여러 상황에서 더 유능한 소통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그들은 더 사교성이 높으며 (Huang 1999), 정서지능이 더 발달하였고 (Keaten and Kelly 2008), 애정관계 및 친구관계 등 다양한 관계를 더 능숙하게 잘 관리할 줄 아는 것으로 나타났다 (Fowler and Pearson et. al. 2010; Ledbetter 2009). 가족 의사소통 패턴이 가족 구성원외의 타인과의 의사소통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은 놀라운 점이 아니다.

2. 아시아계 미국인 가족의 환경 및 가족 의사소통의 패턴

아시아계 가족이나 집단주의 문화의 가족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가족 구성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구성형태는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아 응집력이 강하고 계층 구조가 확실하게 나누어져있다(Yum 1988). 미국 내의 아시아계 미국인 가족의 경우 미국으로 이주한 부모들이 현지에서 태어나고 자란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음으로 아시아 국가에 거주하는 아시아계 가족들과 같지는 않다. 하지만 많은 아시아계 미국인 가족들은 전형적인 아시아계 가족과 유사한 가족 의사소통 구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주민 부모 세대는 종종 그들의 모국과 같은 문화적 기준을 고수하며 이를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자녀세대에 강요한다. 그 결과 아시아계 가족의 원리원칙과 동일하게, 아시아계 미국인 가족의 구성원들도 일반적으로 가족 외의 관계보다 가족 내의 관계를

더 중시하며 자원(시간과 재정 등)을 가족 구성원 간에 서로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Hofstede 1991).

사회적 행동 양상을 보면 집단주의 문화의 사람들은 타인 중심적인 반면 개인주의 문화의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다 (Ting-Toomey and Kurogi 1998). 따라서 집단주의 문화의 사람들은 개인의 목표보다 집단의 목표를 중시하며 조화와 상호적인 것 또는 타인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Trafimow and Triandis et. al. 1991; Triandis 1996). 또한 이들은 일반적으로 가족 내의 규범에 잘 따르며 지키려고 노력한다. 전통적인 아시아계 가족의 경우 부모는 가족을 위해 결정을 내리며 자녀들은 부모의 결정을 존중하며 순종한다(Hofstede 1991). 이러한 행동 패턴은 아시아계 미국인 가족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집단적 문화의 특성은 동조지향성이 높은 가족과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이유로 아시아계 미국인 가족은 대화지향성보다 동조 지향적 경향을 더 많이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16년 현재 아시아계 미국인 가족 의사소통 패턴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아시아계 미국인 가정의 경우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미국문화와 언어 습득의 차이가 있으며 (Titzmann and Sonnenberg 2015) 문화와 언어 차이로 인한 갈등이 자녀들의 심리적 및 행동의 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Lee and Choe et. al. 2000)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미국사회에서 정형화된 모범적인 소수민족의 기대에 부흥하기 위한 스트레스가 자녀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Qin and Way et. al. 2008; Lee and Juon 2009). 같은 맥락에서 가족의 개방형 소통 유형은 자녀들의 심리사회적인 스트레스를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ottie and Dahal et

al., 2015). 또한 유교문화의 영향 및 아시아권 국가의 집단주의 경향이 가족 의사소통 패턴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asley 2016).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은 가족 의사소통 패턴이 아동의 행동 및 정신적 건강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하고 있으나 여러 제한점들이 있다. 첫째, 의사소통 유형을 분석하는데 있어 상호작용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소통 패턴을 고정된 현상으로 분석한 점, 둘째, 가족 의사소통의 유형을 분석하는데 있어 정량적인 방법을 주로 사용한 점, 셋째, 아시아계 미국인 가정이 아시아권에 있는 가정의 가족 의사소통 패턴을 동일시 한 점 등이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가족 의사소통 패턴이 자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자녀들은 이러한 가족 의사소통 유형에 대하여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자녀들과 부모의 상호작용은 어떠한지, 또한 이러한 소통 유형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한 정성적인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보완점들을 고려하여 아시아계 미국인 자녀와 이들의 이주민 부모 세대 사이의 가족 의사소통 패턴을 살펴보았다. 아시아계 미국인의 가족 의사소통 패턴에 중점을 두는 것은 자녀의 행동 및 사회 심리적 특성 결과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특히 중요하다 (Schrodt and Wlitt et. al. 2008). 아시아계 미국인 자녀들은 정신건강의 문제가 가정에서 비롯되고 문제가 있어도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도움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USDHHS 2001) 그 결과로 15-24세 아시아계 여성의 자살률이 다른 인종에 비해 가장 높다 (아시아계 남성은 백인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DC 2008). 본 연구를 통해 아시아계 미국인 가족의 가족 의사소통 패턴을

살펴보고 의사소통 자녀들이 사회 심리적으로 받는 영향을 파악하여 이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제안점을 시사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아래와 같다.

연구 질문1: 문화적 배경이 아시아계 미국인 가정의 의사소통 패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연구 질문2: 아시아계 미국인 가정에 의사소통 패턴은 어떠한가?

연구 질문3: 아시아계 미국인 가정의 의사소통 유형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무엇인가?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자 및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계 미국인 가족의 의사소통 패턴을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인터뷰와 심층 인터뷰를 사용하였다. 심층 인터뷰는 참여자들의 “내면을 이해하고 문화적 측면에서의 의미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아보기에 사용되며 (Corbin and Strauss 2008, 12) 개인의 의미 형성 과정뿐만 아니라 동일한 민족 집단의 생각 또는 관점을 알아보기에 적합한 방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대일 심층 인터뷰와 집단 인터뷰를 모두 사용하였다 (Krueger and Casey 2009).

집단 인터뷰는 총 두 번 이루어졌으며 한 그룹은 남녀가 각각 2명씩 구성된 집단으로 이루어졌으며 다른 집단은 남성 2명과 여성 4명으로 이루어졌다. 일대일 심층 인터뷰에는 남성 5명 여성 2명으로 총 7명이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의 나이는 18세부터 35세였으며 남학생은 9명 여학생은 8명으로 본 연구에 총 17

명이 참여하였다. 심층 인터뷰는 약 30분에서 60분에 걸쳐 진행되었고 평균 45분이 소모 되었으며 집단인터뷰는 평균 70분 정도 걸렸다. 모든 인터뷰는 2011년 9월부터 2012년 12월 까지 미국 동부에 있는 한 주립대학교 진행되었다. 참여자들은 모두 아시아권에서 이민 온 부모를 둔 대학생들이었으며 그 중 1명의 남학생은 일본인 어머니를 1명의 여학생은 중국인 아버지를 둔 혼혈아로 둘 다 스스로를 아시아계 미국인이라는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아시아계 미국인으로 인정받고자 하여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 외의 참여자들은 한국, 중국, 베트남에서 이민 온 1세대 부모에게 태어난 아시아계 2세 미국인 자녀들이었다. 모든 인터뷰는 참여자들의 선호도에 따라 영어로 진행되었다.

모든 심층 인터뷰와 집단인터뷰는 반구조적인 개방형 인터뷰 질문지가 사용되었으며 참여자들에게 가족 의사소통에 대한 그들의 경험과 생각을 물어보았다. 모든 인터뷰 질문들은 기존 연구 및 문헌에 의거하여 구성된 연구 질문과 관련된 질문들이었으며 주로 부모님과과의 의사소통 방법, 협상 과정, 가족 배경, 가족 의사소통의 문제 등과 관련된 질문들이었다.

2. 자료 분석

연구자는 선입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분의 심층 인터뷰와 인터뷰는 녹음하였고 전사한 뒤에 분석하였다. 두 사람의 인터뷰는 요청에 의하여 녹음하지 않았으며 대신 인터뷰 내용은 인터뷰 도중 상세하게 기록 및 요약하여 그 내용을 근거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전체 자료를 전사한 분량은 모두 A4용지로 139페이지 정도 되었으며 전사한 자료는 근거이론방법을 사용하여 개방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 과

정을 따라 분석하였다

IV. 분석 결과

자료 분석결과 아시아계 미국인 자녀들과 이민 1세대 부모 사이에 다양한 의사소통의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대부분의 부모는 성인 이후 미국으로 이주한 이민 1세대였고 대다수의 참여자들은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5세 이전에 이주한 2세대들이었다. 1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개인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아시아계 미국인 자녀와 이민 1세대 부모로 구성된 가정의 의사소통 패턴은 1)자녀의 내적 정체성 갈등 2) 자녀들에 의해서 제한된 부모의 역할, 3) 조원을 원치 않는 자녀들, 4) 조언을 해주고 싶은 부모들, 5) 부모의 일방적인 아시아적 의사소통 유형 및 6) 자녀들의 소극적이고 회피형의 의사소통 방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조지형적 가족 의사소통 패턴이 자녀의 정체성 및 의지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1. 자녀의 정체성과 가치관의 문제

본 연구의 결과로 가족의 의사소통 문제에 있어 참여자들의 정체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미국에서 태어나 일생을 미국에서 살았지만 참여자들은 스스로를 중국계, 한국계, 베트남계 미국인으로 정체성을 규명하였다. 심지어 두 명의 혼혈 참여자도 스스로를 미국인이 아닌 아시아계 미국인이라고 정의했다. 참여자들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가정에서 부모님의 모국어로 소통을 하다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후부터 영어를 배워

모국어가 퇴보되자 부모와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중국어 또는 한국어 학교에 다녔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시간적 제약 및 개인의 선택에 의해 중도하였기 때문에 중국어 혹은 한국어 수준은 유창하지 않다고 하였다. 이들은 밖에서는 영어를 쓰지만 집에서는 부모와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부모의 모국어를 사용하였다.

참여자들 중 몇몇은 이중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도 다른 참여자들과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습득한 아시아적 가치와 학교와 사회에서 배운 미국적 가치의 균형을 잡는 것은 쉽지 않았다고 토로하였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부모에게서 배운 아시아적 가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배웠기 때문에 아시아적 가치란 가족을 우선시하고 노인을 공경하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 등이라고 자신 있게 설명하였다. 한 중국계 참여자는 “중국 문화에서는 노인을 공경해야 하며 말대답을 하면 안 된다.” 라고 하였으며 또 다른 참여자는 “나는 가족의 응집성이 강해야 한다고 믿는다. 나는 매우 가족적이며 이러한 점들은 중국 문화의 큰 주축이다.” 라고 하였다. 표면적으로는 참여자들은 아시아적 가치에 대해 깊은 이해가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심층 인터뷰 결과 이러한 인터뷰 대상자들에게 이러한 아시아적 가치가 온전히 내면화 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히려 아시아적 가치보다는 미국 사회의 가치가 더 많이 자리가 잡혀 있었다. 이는 아시아적 가치와 미국적 가치가 대립할 경우 참여자들은 많은 혼란을 경험하였고 매 상황마다 어떻게 처신해야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음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두 문화가 충돌해서 어떤 선택

을 해야 할지 모를 경우 결국에는 미국적 가치를 선택하여 여러 상황을 이해 및 대처해 나갔다. 이는 미국적 가치가 더 낫게 가고 이해가 되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했지만 아시아적 가치가 우선시 되는 경우는 특정상황이나 문제가 부모와 관련이 있을 때였다. 부모 부양과 같은 효(孝)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참여자들 자신에게는 유익하지 않더라도 아시아적 가치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에서 한 참여자는 “저는 부모님을 절대 양로원에 보내지 않을 거예요. 전 부모님과 같이 지낼 거예요. 전 중국 문화가 그렇다고 배웠어요. 부모님이 절 돌봐 주었듯이 저도 부모님을 돌봐 드릴 거예요.” 라고 하였다. 아직 대학생에 불과했지만 그녀는 부모님이 연로하여 도움이 필요할 경우 부모님을 부양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요받은 적은 없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였다. 또 다른 참여자도 부모를 부양할 수 있을 만한 소득을 벌수 있는지의 여부가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아시아적 가치보다 미국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연애 대상(인종 및 민족적)을 선택하는 부분, 귀가 시간을 정하는 부분, 집안일에 참여하는 정도를 결정하는 부분 등에 있어서는 자신의 발언권, 선택의 권리, 및 선택의 자유 등이 침해되는 것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한 참여자는 아시아적 가치에 따라 노인을 공경하고 말대꾸를 하지 말아야하며 부모님께 대들면 안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미국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발언의 자유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고민이 많이 된다고 토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물어보

니 많은 경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 간다고 하였다.

이처럼 많은 참여자들이 부모님과 관계에서 갈등상황에 놓이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였으며 상황마다 다르지만 아시아적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은 이들이 아시아적 가치를 가정과 사회에서 경험적으로 습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면화 되지 않았으며 경험적으로 습득한 미국적 가치가 더 많이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내적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이들은 아시아계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적 가치를 더욱 내면화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을 가지고 있어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한 참여자의 인터뷰 내용이 이러한 내적 갈등을 잘 말해주고 있다. 부모님의 일방적인 중국식 생활 습관을 강요받고 있는 한 여학생은 “저는 제 친구들과 어울릴 때 미국인이 될 수 있어요.”라고 하였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미국인이 되고 싶지만 부모가 자신을 아시아인으로 인지하고 있고 아시아적 가치를 내면화 하라고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본인이 원하는 온전한 미국인이 될 수 없으며 자신이 자유롭게 미국인으로 행동할 수 있을 때는 언행을 어떤 식으로든 강요하지 않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참여자의 경우 중국의 가치와 미국의 가치의 차이의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공존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어느 선까지 중국식 생활방식을 취해야 하는지 매우 혼란스럽다고 덧 붙였다. 즉 아시아적 가치와 미국의 가치가 균형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어느 정도까지 아시아적 가치를 내면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그 중심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경우는 자신이 본인에게 주는 압박감이고 어떤 경우는 부모의 강요에 의한 것일 수 있지만 양자 모두 이민 2세들에게는 이러한 요소가 어떻게 부모와 소통을 해야 하는지 의사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매우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여자들마다 갈등을 경험하였거나 경험하고 있었고 현재 갈등을 덜 경험하고 있는 경우는 회피(혹은 무시)를 하는 경우 혹은 관계가 좋아 갈등이 최소화 된 경우였다. 부모와의 관계가 유독 좋았던 한 참여자의 경우는 그녀의 1세대 부모가 아시아적 가치를 강요하지 않았으며 1세대 부모가 미국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미국화 되어 미국의 가치를 습득 및 이해하여 자녀에게 강압적으로 아시아적 가치에 의거한 소통 방식을 강요하지 않은 경우였다. 이러한 경우 두 문화의 차이에 의한 갈등이 적기 때문에 부모와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었다.

2. 가정 안에서 제한적인 부모 역할

인터뷰 결과 참여자들은 자신의 부모에게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 특정한 역할만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재를 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부모들이 미국에 오랜 시간 거주하였지만 미국의 문화와 언어에 대한 이해가 자신들보다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부모들의 미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언어적 제한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에게 많은 의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이 현재까지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대해 질문했을 때 참여자들은 선뜻 응답하지 못하였다. 부모의 역할로 흔히 예를 들 수 있는 양육자, 제공자(provider), 조연자 또는 롤모델과 같은 답변은 나오지 않았고 대부

분의 참여자들은 침묵 혹은 웃음으로 답하였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부모님이 자신에게 해 준 것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한 참여자는 대학 진학을 준비할 때 부모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다고 하였다. 그녀의 부모는 모두 의사였지만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대학원서 작성 및 학교 선정 등에 대하여 도움을 줄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학교 선택 및 친구들에 도움을 청해 혼자 해결했다고 하였다. 다른 참여자들도 마찬가지로 부모에게 아무런 도움도 청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부모에게 도움을 받을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의지하는 부분 또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자동차(구입, 경비, 관리 등)나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주로 아버지를 찾았고 그 외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대화에 있어서도 의사소통의 양은 매우 적었으며 대화의 주제 또한 매우 제한적이었다.

3. 조언을 원치 않는 자녀들

참여자들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실제로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의 여부를 떠나 부모님이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조언이 필요할 경우에도 부모를 찾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학교, 취업, 연애, 관계 등의 문제에 있어서도 부모에게 조언을 구하기에 앞서 이미 비슷한 경험을 한 친구나 선배를 찾는 경우가 더 많았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부모가 모국에서 교육 받고 성인이 된 후에 이민을 온 탓에 자신의 문제에 대해 조언을 해 줄 수 없거나 정보가

없을 것으로 간주하였고 이런 이유로 부모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

부모에게 조언을 구한다는 예외의 2명의 참여자들은 부모에게 취업과 관련된 조언을 구한다고 하였다. 해당 자녀들은 우선 자신의 부모님이 언어장벽 때문에 미국에서 많은 고생을 하였고 그러한 부모를 존경한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님의 직업과 자신이 앞으로 선택할 직업은 다르겠지만 그들의 값진 경험이 자신에게도 적용가능하다고 보고 조언을 구하였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참여자들도 그들의 부모가 미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기 위해 많은 고생을 한 점은 인정했지만 조언을 해줄 수 있다고 보지는 않았다. 인터뷰에서 드러난 부분은 어떠한 이유이든 부모님께 조언을 구하고 싶어하지 않는 학생들은 그 이유가 부모의 영어 실력과는 무관하다는 점이었다. 부모의 영어 구사 능력이 유창하여도 가치관 혹은 자신의 계획과 부모가 원하는 바가 다를 경우, 부모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경우, 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 등등 모두 부모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4. 조언을 해주고 싶은 부모들

인터뷰 결과 참여자들은 부모님의 조언을 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자녀에게 조언을 해주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부모들이 자신들에게 연애와 관련된 조언을 특히 많이 한다고 하였다. 부모들의 주된 연애 조언들은 ‘너는 중국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해’ ‘미국 애들이랑 연애하면 안 돼’ 등과 같은 내용이었고 대부분의 경우 부모는 참여자들이 연애 및 결혼을 할 수 있는 상대의 민족 및 인종을 한정지었다. 자신의 민족과 다른 민족 혹은 인종과 연애를 해도 된다는 부모

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관계는 같은 민족의 사람들이어야만 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언은 성별의 차이가 있었다. 한 남성 참여자는 자신의 부모님이 자신과 여동생을 차별 한다고 하였다.

"제 여동생은 연애 문제 때문에 부모님과 많이 부딪히고 있어요. 제 생각에 저는 남자라서 부모님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는 밤늦게까지 밖에 있어도 부모님이 크게 문제 삼지 않는데 여동생이 그러면 왜 그렇게 늦게 다니냐며 뭐라고 하시죠. 그리고 여동생이 백인 남성과 데이트 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제 생각에 부모님은 여동생이 중국인과 연애를 했으면 하고 바라시는 것 같아요."

이렇듯 연애규칙은 딸들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되었다. 한 여성 참여자는 그녀가 연애를 할 때마다 그녀의 어머니가 새로운 연애 규칙을 만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은 가족 구성원 중 다른 인종과 결혼한 사람이 있을 경우 덜 엄격하게 적용되었다. 이전에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 엄격했던 부모를 가진 한 여성 참여자는 "최근에 제 이모 중 한 분이 백인 남성과 결혼을 해서 이제는 (인종이) 크게 문제 되지 않아요. 저희 가족 구성원 중에 백인 남성이 생겨서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인터뷰 결과 연애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부모에게서 자란 자녀일수록 부모님의 조언에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다. 부모님의 조언은 대체로 통보식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자녀들이 준수해야 할 가족 규율에 가까웠으며 참여자들은 따르고 싶지 않더라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 부모님의 지시사항에 따라 마지못해 다른 인종

/민족과 연애를 하지 않는 참여자들은 부모님과 이와 관련 된 이야기는 더 이상 꺼내고 싶지 않다고 할 정도로 부모와 자신의 견해가 다르다는 점은 단호하게 얘기하였다.

5. 부모 의사소통 유형: 정보중심적

부모님과 의사소통에 대한 질문이 주어졌을 때 다수의 참여자들은 대답을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다수의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부모님과의 대화 주제는 학교, 일 그리고 시사 뉴스로 제한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대화 주제의 유형과 의사소통 패턴은 한국계, 중국계 등 인종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부모와의 의사소통 방식 또한 매우 제한적이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대학교 기숙사에서 지냈기 때문에 주로 어머니 쪽에서 주기적으로 전화를 하여 관계를 유지하였다. 일부 부모는 더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문자 등의 새로운 수단을 배우기도 하였다. 한 참여자는 그의 부모님에게 문자 보내는 방법을 가르쳐드린 뒤 부모님과 더 자주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부모와의 통화/문자는 짧고 간결했으며 주기적이지만 빈도수는 적었다.

거의 대부분의 의사소통은 자녀가 잘 지내는지, 밥은 잘 챙겨먹는지, 돈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등과 같은 정보 위주의 소통이었으며 정서의 공유나 개인의 생각, 의견을 나누는 내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님들과 정서나 감정을 나누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한 참여자는 "저희 아버지는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는 자세한 질문을 하고자 하시지만... 부모님들 스스로가 그들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아요."라고 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사실 전 어머니에게 제 모든 걸 털어놓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도 저한테 모든 걸 털어놓지 않으시거든요.” 라고 이야기했다. 해당 참여자는 과거의 경험에 빗대어 보았을 때 부모님과 관계에 있어서 큰 발전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 하는 듯 보였다. 몇몇의 참여자들은 부모와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에 대하여 부모님과 진솔하게 얘기를 나눈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정서적인 대화의 부재에 대해 각각의 참여자들은 여러 의견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 중 일부는 언어장벽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제 생각에는 언어가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자라면서 저한테 해주고 싶은 말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말할 방법을 몰라서 못 해주셨대요. 그건 부모님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저희한테도 좌절할만한 일이었죠. 한국어로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실 때 저희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입장에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으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저는 언어적인 장벽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 아버지는 여기서 대학을 다니셔서 영어가 유창하시지만 어머니는 적당한 수준이에요. 하지만 얘기는 아무와도 잘 되지 않아요.”

참여자들은 이처럼 부모와의 소통은 주로 짧고 정보교환 위주라고 하였으며 감정적인 공감대를 형성한다든지 깊은 마음속의 얘기를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6.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 아시아적

아이러니하게도 위에 언급된 참여자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아버지가 영어를 잘 구사하여도) 어머니보다 아버지와 의사소통할 때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덧붙였다. 아버지와 대화를 시도하려고 해도 아버지가 질문에 반응을 보여주지 않는다는지 짧게 답변만 할 때가 많아서 일상적인 대화 이외에 더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였다. 참여자 가운데 일부는 아시아인들이 점잖고 순종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사소통 형태를 갖는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유형이 “아시아적” 의사소통이라고 하였다.

참여자에게 의하면 아시아적 의사소통은 주로 일방적이며 공감대 형성이 결여된 형태라고 하였다. 한 참여자는 가정안의 규칙을 정할 때 부모님이 그녀와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고 결정을 내린 다음 통지만 한다고 하였다.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참여자들이 여럿 있었으며 그들은 자신이 가족의 일원이고 결정이 자신과 관련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개입도 하지 못했다는 점이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곧 부모님이 자신과 의사소통을 원치 않기 때문에 비롯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이야기를 한 참여자들의 부모들은 비교적 더 권위적이고 아시아적 가치를 강요하는 것으로 보였다.

부모의 일방적인 의사소통에 대하여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참여자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부모들의 방법을 조금 이해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들은 부모들의 의사소통은 단순한 연령차와 세대 차이라고 판단하였다.

“제 생각에 저는 제 부모님과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전 저와 부모님이 서로 단절되어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언어

장벽 때문에 의사소통을 잘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정확하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어머니가 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문화적인 것 보다 나이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 제가 중국에서 자랐다고 하더라도 나이 때문에 어머니가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문화로부터 기인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른 원인을 든 참여자들도 있었지만 모든 참여자들은 부모님과 의사소통 문제가 어떤 원인에 기인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바로 대답을 해 주었다. 이는 참여자들이 자신과 부모 사이에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원인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한 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님들이 가족 문제에 관해 논의할 때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확실했으나 이유는 불분명했다. 어쩌면 자녀를 토론에 참여시킬만한 의사소통 기술이 부모님에게 없어서일 수도 있고 자녀에게 과도한 자유를 주었을 때 권위나 통제권을 잃을까 두려워서일 수도 있다. 혹은 아시아적 가치와 미국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통합시켜(예를 들어 연장자에게 말대답을 하면서도 공경하며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 적용해야하는지 방법을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자들도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했으며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참여자들은 부모님들과의 의사소통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아시아적 의사소통 방법은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7. 자녀들의 의사소통 유형: 소극적

인터뷰 결과 부모들과 다르게 자녀들은 부모와 많은 소통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은 이러한 참여자들의 부모들은 상대적으로 더 엄격하고 자녀의 삶에 있어서 아시아적인 가치를 강요하고 있었다. 유년시절부터 일방적으로 강요를 많이 한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은 부모를 이해하지 못했으며 부모님께 마음을 여는 것이 솔직히 어렵다고 토로 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부모님과의 언쟁을 피하기 위한 방어 전략으로 소극적 의사소통 유형을 선택한다고 하였다. 한 참여자가 아버지와 소통하는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하였다.

“아버지가 ‘오늘 하루는 어땠니?’ 라고 물어보면 저는 ‘괜찮았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가능한 한 대답을 짧게 하죠. 주로 시험이 있으면 말씀드리고...아버지의 사업에 대해 여쭙보죠. 그리고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는지 물어봐요. 저희는 그렇게 지내요.”

그는 마찰이 생길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부모와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주제는 되도록 조심스럽게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 참여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몇쩍은 웃음을 지었는데 이를 본 다른 참여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현하였다. 아마 그들도 유사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 한다.

8. 자녀들의 의사소통 유형: 회피성

참여자들 중 회피형 의사소통을 선택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의사소통 자체를 피함으로써 자신이 어떻게 소통을 ‘다루는 방법’을

터득했는지 이야기했다. 한 참여자는 부모님과 갈등을 피하는 방법은 문제 자체를 등한시하고, 집 밖에서 할 일들을 찾고, 갈등요소가 있는 문제는 집에서 이야기 자체를 아예 꺼내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녀가 가족문제로 받은 스트레스를 분출하는 유일한 방법은 남자친구 혹은 같은 상황에 처한 친구를 만나는 것이라고 하였다. 혹시 갈등요소에 대하여 부모님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전에 시도해 본 적이 있지만 통하지 않았고 앞으로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듯 이야기 하였다. 이처럼 부모와 이전에 갈등상황이 빚어 부딪힌 경험이 있는 참여자들을 다시는 그 이야기를 부모와 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각각 상이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갈등을 대하는 부모들의 방법과 태도는 유사했으며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그 문제를 다시 꺼내서 해결하고 싶은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았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있어 자신의 과거 경험을 매우 비관적으로 논했으며 일부는 다시 과거의 특정 사건을 다시 회상하는 듯 씩씩한 표정을 지으며 이야기 하였다. 몇몇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부모는 다른 문화권에서 생존하기 위해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자녀들과 원만한 소통을 할 여유가 없었다며 애써 변론하였지만 이러한 참여자들 역시 자신들의 부모님이 소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해결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V. 논의와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개인 심층 인터뷰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아시아계 이주민 2세 자녀들이 바라보는 가족 커뮤니케이션 유형과 문제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들이 자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17명의 참여자 가정들이 대화지향적 패턴보다 동조지향성을 띄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동조지향성이 높은 가족의 구성원은 부모님에게 편견을 듣거나 더 큰 언쟁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개인의 의견과 생각을 말하기 기피한다. 또한 이들은 특정 문제에 부정적 결과를 기대함으로써 민감한 문제에 대해 말하는 것을 꺼려하게 되고 결국 논의자체를 피하게 된다(Afifi and Olson 2005). 아피피와 올슨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참여자들은 논의자체를 피하는 소극적, 회피성 의사소통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형의 소통 형식은 유교문화의 영향에 의거한 것으로 보였는데 참여자들은 이러한 형식을 ‘아시아적 소통 방법’이라고 칭하였고 일방적, 정보위주형, 통보형, 정서적 공감 결여 등이 특징이라고 설명하였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아시아적 소통은 미국의 소통방법과 매우 다르고 다름은 서로 상이한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아시아적’ 의사소통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인터뷰 결과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혹은 자신이 스스로에게 아시아적 가치관을 내면화해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줄수록 가족의 의사소통 방법에 더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내적 갈등도 컸다. 이는 참여자들이 아시아적 가치관을 체험이 아닌 학습을 통해 체득하였기 때문에 갈등상황에 지식적으로 배운 가치를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더 큰 혼란과 갈등이 야기

하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아시아계 미국인으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아시아적 가치를 내면화하여 이해하여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부모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의 문화와 가치관이 더 깊숙이 자리 잡힌 자녀들에게 표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아시아적 가치관을 모든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들은 아직 어느 정도까지 아시아적 가치를 삶속에 적용해야하는지에 대해 그 정도와 수준을 찾아나가는 탐색 과정인 것으로 보였다.

때문에 일방적인 부모들의 유교가치가 반영된 동조적 의사소통 패턴은 자녀들에게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첫 째,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제재와 강요가 심한 부모와 의사소통을 하는 참여자들은 더 큰 좌절감과 혼란을 겪은 것으로 보였으며 그 결과로 회피성 의사소통을 취하여 의견충돌을 줄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갈등을 회피하는 의사소통 방식은 동조지향성이 높은 가족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둘째, 행동적인 측면에서는 요구를 중단한다든지 혹은 외부로 활동분야를 넓히는 (가족 내에서는 저조한 참여도와 회피성 소통을 취하며) 경향을 보였다. 장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가족 의사소통 패턴이 갈등 회피성 자녀를 양성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다 (Zhang 2007).

본 연구가 기존의 연구를 확장시키는 부분은 두 영역이며 그 중 첫 번째는 정체성과 관련된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들의 정체성 문제가 이들에게 매우 큰 스트레스 요인이며 아직 대학생인 젊은 자녀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부모와의 갈등문

제를 해소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들은 언어와 문화는 완벽하게 구사하고 이해하였지만 가정이라는 영역 안에서 서로 대립되는 두 개의 가치를 어떻게 타협해야하는지 잘 알지 못하였고 이러한 어려움을 부모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간주하였기 때문에 혼자 풀어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부모들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가치관과 이러한 가치관을 반영하는 '아시아적'소통 방식이 이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으며 대화로 풀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결국은 회피성 소통 방법을 선택하고 있었다. 이들은 소극적, 회피적 소통 방법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해결이 될 것이라고 간주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 회피 방법은 즉각적인 분쟁을 마무리하기 위한 피상적인 방법일 뿐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참여자들의 문제가 온전히 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내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기존의 연구에 기여하는 두 번째 부분은 자녀들이 동조적 가족 의사소통 유형을 유지하는데 기여를 한다는 부분이다. 자녀들은 회피 혹은 소극적이라는 소통을 의지적으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소통 방법은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즉, 이러한 의지적 행동은 가정의 동조적 의사소통 패턴을 유지 및 지속하는데 참여자들 자신도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어렸을 때는 미숙하여 가정 의사소통 패턴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지만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할 수 있는 연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사소통 패턴을 유지하기 원한다는 것은 그들도 동조적 패턴 형성에 심분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대회지향적 소통 방법에 대한 인식 부재 혹은 자신과 부모가 다르다는 인식에서 비롯하여 그 다름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일 수도 있다.

혹은 두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문화가 다른 문화에 어느 정도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인지하여 내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어체제로 자기와 덜 맞는 한 문화를 거부하는 현상으로도 이해할 수도 있다. 이러한 동조적 가족 의사소통 패턴을 유지하는 이유 및 이들의 선택이 가족의 의사소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가족은 사회의 기본 구성단위이며 사람들은 친구나 대인관계에서의 동료로 선택하듯이 부모를 선택할 수 없으므로 부모-자녀 관계를 심도 있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아시아계 미국인 가족의 경우 부모 세대와 자녀의 문화적 배경과 언어의 차이로 더 복잡한 문제를 겪을 수 있으며 아시아계 미국인 자녀의 경우 가족 문제로 인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불만족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아시아계 미국인 자녀의 경험과 가족 의사소통 패턴의 특징에 대해 고찰해 보았으며 기존의 연구와 다르게 자녀들의 정체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이들의 의지적인 소극적, 회피형 소통이 동조적 가족 의사소통 패턴 유지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는 결과를 내었다.

대화지향적 의사소통 패턴은 동조지향성이 높은 아시아계 미국인 가족에게 자연스럽게 없다고 느껴질 수 있으나 부모와 자녀 모두 이러한 의사소통 방식을 배우고 두 가지 의사소통 방식을 통합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아시아계 미국인 가정의 경우 가정 안에서 두 문화가 공존하기 때문에 양 문화적 가치관이 배어있는 의사소통 유형을 고안해 내어야 하며 부모와 자녀는 시행착오를 통해 가정 안에서 가장 적합한 의사소통 방식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는 즉 미국문화와 부모의 문화를 양자택일하는 것이 아닌 부모와 자녀가 자신들에게

적용 가능한 발렌스를 찾아 양 문화의 장점을 부분적으로 취하여 혼란과 오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의사소통 형식이 부모 혹은 자녀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될 경우 납득할 수 없는 특정 가치관을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큰 혼란과 무질서를 가져올 수 있다. 혼란 상황이 심화될 경우 우울감 (Koerner and Fitzpatrick 1997), 스트레스 (Pennebaker 1990), 그리고 관계에 대한 불만 (Vangelisti and Caughlin 1997)과 같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부모-자녀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관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며 자녀는 부모와 함께 문제점들을 의논하고 조언을 구할 수 있게 된다.

미국 내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많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주류 문화에 편승함에 따라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정체성과 이들의 사회심리적, 행동적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족 의사소통 패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아시아계 미국인 가족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는 3세대, 4세대 아시아계 미국인의 수가 증가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아시아계 미국인 가족의 의사소통 문제를 파악함으로써 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갈 수 있고 다음 세대가 이와 같은 세대 간의 문제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부모 세대를 연구에 참여시키지 않아 전체적인 과정을 살펴보지 못했다는 점이다. 연구 대상자를 섭외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 이번 연구에는 부모들을 인터뷰 할 수 없었지만 다음에는 부모-자녀를 함께 인터뷰하여 입장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는 가정사라는

다소 예민한 문제들을 다루었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가족 의사소통 방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솔직하게 이야기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연구를 위해 설문지조사를 실시하였지만 서술형 질문에는 응답을 하지 않아 인터뷰로 진행을 했으며 설문조사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질문의 민감성 때문에 몇몇의 인터뷰 대상자들은 몇 개의 인터뷰 질문에 응답하길 원치 않았으며 집단 인터뷰 중에서도 몇몇은 중간 중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참여자들의 결정에 의해 모든 인터뷰는 끝까지 진행되었다). 이렇듯 연구의 한계는 있지만 쉽지 않은 주제로 가족 의사소통 패턴을 살펴본 본 연구가 의미가 있으며 기존의 방법과 달리 질적 방법론을 사용한 점은 현재 이 주제와 관련된 문헌에 기여하는 점이라고 사료된다.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 세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의사소통 문제를 어떻게 식별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와 가족 의사소통 방법이 자녀의 가정 밖에서의 사회적 상호관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2세대와 이민 3세대 사이의 가족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가정 내의 여러 가지 갈등들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한국의 다문화가정 안에서 일어날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의사소통의 문제 또한 이해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016년 현재 한국에 180만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은 날로 증가한다. 국내에서도 다문화가정의 역사가 더 길어지면 서 문화와 언어차이로 인한 가족안의 의사소통의 문제가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과 문화차이가 큰 문화권에서 이주한 여성의 경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 자녀들

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며 시급하다. 특히 학업중도학생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의사소통패턴이 학업과 진로 등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는 매우 유의미한 연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문화와 언어가 다른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의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Reference

- Affi, Tamara, and Loreen Olson. 2005. "The Chilling Effect in Families and the Pressure to Conceal Secrets. *Communication Monographs* 72: 192-216.
- Avtgis, Theodore. 1999. "The Relationship Between Unwillingness to Communicate and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Communication Research Reports* 16: 333-338.
- Barber, Brian. 1994. "Cultural, Family, and Personal Contexts of Parent-Adolescent Conflic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375-386.
- Baxter, Leslie, Carma Bylund, Rebecca Imes, and Denise Scheive. 2005. "Family Communication Environments and Rule-based Social Control of Adolescents Healthy Lifestyle Choices." *Journal of Family Communication* 5: 209-227.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2008. "10 Leading Causes of Deaths, United States, 2005, Vol. 2008. Atlanta: CDC.
- Chaffee, Steven H., Jack M. McLeod, and Daniel B. Wackman. 1973.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and Adolescent Political Participation. In *Socialization to Politics: A Reader*, edited by Jack Dennis, 349-364. New York: Wiley.
- Corbin, Juliet and Anselm Strauss. 200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3rd ed. Los Angeles: Sage.
- Costigan, L. Catherine, and Daphne P. Dokis. 2006. "Relations Between Parent-child Acculturation Differences and Adjustment within Immigrant Chinese Families. *Child Development* 77: 1252-1267.
- Fowler, Michael, Judy C. Pearson, and Stephenson J. Beck. 2010. "The Influences of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on Adult Children's Perceptions of Romantic Behaviors. *Journal of Communication, Speech and Theatre Association of North Dakota* 23: 1-11.
- Greenberger, Ellen. and Chuansheng Chen. 1996. "Perceived Family Relationships and Depressed Mood in Early and Late Adolescence: A Comparison of European and Asian Americans. *Developmental Psychology* 32: 707-716.
- Guest, Greg, and Kathleen M. MacQueen. 2008. *Handbook for Team-based Qualitative Research*. New York: Altamira.
- Hofstede, Geert. 1991. *Cultures and Organizations*. London: McGraw-Hill.
- Huang, Li-Ning. 1999.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Communication Quarterly* 47: 230-242. doi:10.1080/01463379909370136
- Keaten, James and Lynne Kelly. 2008. "Emotional Intelligence as a Mediator

- of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and Reticence. *Communication Reports* 21: 104-116 doi:10.1080/08934210802393008
- Kelly, Lynne, James Keaten, Cynthia Finch, Ilze Duarte, Patrizia Hoffman, and Margaret Michels. 2002.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and the Development of Reticence. *Communication Education* 51: 202-209.
- Koerner, Ascan., and Kristen E. Cvancara. 2002. "The Influence of Conformity Orientation on Communication Patterns in Family Conversations. *The Journal of Family Communication* 2: 133-152.
- Koerner, Ascan., and Mary A. Fitzpatrick. 1997. "Family Type and Conflict: The Impact of Conversation Orientation and Conformity Orientation on Conflict in the Family. *Communication Studies* 48: 59-75.
- . 2002a. "Toward a Theory of Family Communication. *Communication Theory* 12: 70-91.
- . 2002b. "You Never Leave Your Family in a Fight: The Impact of Family of Origin on Conflict-behavior in Romantic Relationships. *Communication Studies* 53: 234-251.
- Krueger, Richard A. 1998. *Analyzing and Reporting Focus Group Results*.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Krueger, Richard. A. and Mary A. Casey. 2009. *Focus Groups: A Practical Guide for Applied Research*, 4th ed. Thousand Oaks: Sage.
- Lasley, Chandra. 2016. "Asian Americans: The Mediating Effects of Family on the Longitudinal Impact of Discrimination on Self-Esteem and Wellbeing." Doctoral Dissertation. Kansas State University.
- Lee, Evelyn, ed. 1997. *Working with Asian Americans: A Guide for Clinicians*. New York: Guilford Press.
- Lee, Richard M., Jennifer Choe, Gina Kim, and Vicky Ngo. 2000. "Construction of the Asian American Family Conflicts Sca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2): 211-222.
- Lee, Sunmin; Hee-Soon Juon; Genevieve Martinez; Chiehwen E. Hsu; E. Stephanie Robinson; Julie Bawa; and Grace X. Ma. 2009. "Model Minority at Risk: Expressed Needs of Mental Health by Asian American Young Adults. *Journal of Community Health* 34 (2): 144-152
- Ledbetter, Andrew M. 2009.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and Relational Maintenance Behavior: Direct and Mediated Associations with Friendship Closenes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35: 130-147. doi:10.1111/j.1468-2958.2008.01341.x
- McLeod, Jack., Charles Atkin, and Steven Chaffee. 1972. "Adolescents, Parents, and Television Use: Adolescent Self-report Measures from Maryland and Wisconsin Samples. In *Television and Social Behavior: Reports and Papers*, Vol. III, *Television and Adolescent*

- Aggressiveness*, edited by George A. Comstock and Eli A. Rubinstein, 173-238. Rockville, MD: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 McLeod, Jack, and Steven Chaffee. 1972. "The Construction of Social Reality." In *The Social Influence Processes*, edited by James T. Tedeschi, 50-99. Chicago: Aldine-Atherton.
- McLeod, Jack., Ramona Rush, and Karl Friederich. 1968. "The Mass Media and Political Information in Quito, Ecuador." *Public Opinion Quarterly* 32: 575-587.
- Miles, Matthew. B., and Michael A. Huberman. 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An Expanded Sourcebook*. Thousand Oaks CA: Sage.
- Pennebaker, James. 1997. *Opening Up: The Healing Power of Emotional Expression*. New York: Guilford.
- Pottie, Kevin; Govinda Dahal; Katholiki Georgiades; Kamila Premji; and Ghayda Hassan. 2015. "Do First Generation Immigrant Adolescents Face Higher Rates of Bullying, Violence and Suicidal Behaviors Than Do Third Generation and Native Born?" *Journal of Immigrant and Minority Health* 17 (5): 1557-1566.
- Qin B. Desiree, Niobe Way, and Preetika Mukherjee. 2008. "The Other Side of the Model Minority Story: The Familial and Peer Challenges Faced by Chinese American Adolescents." *Youth and Society* 39 (4): 480-506.
- Ritchie, David L. 1991.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An Epistemic Analysis and Conceptual Reinterpretation." *Communication Research* 18 (4): 548-565.
- Ritchie, David L, and Mary A. Fitzpatrick. 1990.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Measuring Intrapersonal Perception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Communication Research* 17 (4): 523-544.
- Schrodt, Paul. 2005. "Family Communication Schemata and the Circumplex Model of Family Functioning." *Western Journal of Communication* 69: 359-376.
- Schrodt, Paul., and Andrew Ledbetter. 2007. "Communication Processes that Mediate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and Mental Well-being: A Mean and Covariance Structures Analysis of Young Adults From Divorced and Nondivorced Familie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33, 330-356.
- Schrodt, Paul., Andrew Ledbetter, and Jennifer Ohrt. 2007. "Parental Confirmation and Affection as Mediators of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and Children's Mental Well-being." *The Journal of Family Communication* 7: 23-46.
- Schrodt, Paul., Paul Witt, and Amber Messersmith. 2008. "A Meta-analytical Review of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and Their Associations with Information Processing, Behavioral, and Psychosocial Outcomes." *Communication Monographs* 75: 248-269.
- Sillars, Alan., Ascan Koerner, and Mary A. Fitzpatrick. 2005. "Communication and Understanding in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31: 102-128.

- Silverman, David and Amir Marvasti. 2008. *Doing Qualitative Research: A Comprehensive Guide*. Thousand Oaks, CA: Sage.
- Titzmann, Peter and Katharina Sonnenberg. 2015. "Adolescents in Conflicts: Intercultural Contract Attitudes of Immigrant Mothers and Adolescents as Predictors of Family Conflict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online preprint version, 1-9.
- Ting-Toomey, Stella. 1985. "Toward a Theory of Conflict and Culture." In *Communication, Culture, and Organizational Processes*, edited by William B. Gudykunst, Lea P. Stewart, and Stella Ting-Toomey, 71-86. Beverly Hills: Sage.
- Ting-Toomey, Stella and Atsuko Kurogi. 1998. "Facework Competence in Intercultural Conflict: An Updated Face-negotiation Theor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2: 187-225.
- Ting-Toomey, Stella John Oetzel, and Kimberlie Yee-Jung. 2001. "Self-Constructual Types and Conflict Management Styles," *Communication Reports* 14: 87-104.
- Trafimow, David Harry C. Triandis, and Sharon G. Goto. 1991. "Some Tests of the Distinction Between the Private Self and the Collective 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649-655.
- Triandis, Harry C. 1996. "The Psychological Measurement of Cultural Syndromes." *American Psychologist* 51: 407-415.
- Uba, Lincoln. 1994. *Asian Americans: Personality Patterns, Identity, and Mental Health*. New York: Guilford Press.
- U.S. Census Bureau 2004. "U.S. Interim Projections by Age, Sex, Race, and Hispanic Origin: 2000-2050" <http://www.census.gov/ipc/www/usinterimproj/> / Internet Release Date: March 18, 2004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USDHHS). 2001. *Mental Health: Culture, Race, and Ethnicity: A Supplement to Mental Health* (No. SMA-01-3613)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Vangelisti, Aita L and John P. Caughlin. 1997. "Revealing Family Secrets: The Influence of Topic, Function, and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4: 679-705.
- Yum, June O. 1988. "The Impact of Confucianism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Communication Patterns in East Asia." *Communication Monographs* 55: 374-388.